



豚子가라사대... 양돈장 위생 어려움거야? 그런거야? ①

그간 양돈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의 하나가 질병과 위생 등의 분야이더군요. 물론 그렇게 어려워들 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이 수의삽네 뭐네 하며 양돈장 주변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양돈장 위생의 이론과 실천은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태권도나 검도의 고수가 매우 현란한 외공을 구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간결한 발차기 동작 몇 가지나, 기본적인 검술 동작 몇 가지가 바탕에 된 기술들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다만 그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끝없는 수련과 그보다 근처에 엄청난 내공이 반석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평범한 사람과 차이점이겠지요.

양돈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 현상들도 언뜻 보면 엄청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질병 이전에 돼지라는 생명에 대한 이해와 여러 양돈 관련 책자에서 알려주는 돼지 기르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양 지식만 알고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양돈장의 위생이라는 부분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것일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양돈장의 위생이 얼마나 간단한 부분에서 출발하는 것인지를 실



황 윤 재 팀장
영동양돈농협 수의팀

례를 들어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꽤 오래 전, 모돈 100여두 정도의 일괄 사육 양돈장을 방문하면서 겪었던 일인데 이 농장주는 비교적 양돈 초보자였고 기존의 농장을 임대하여 나름대로 돈사를 고쳐서 사용하였는데 얼마 전부터 이유 전후의 자돈들 중에서 폐사가 심심치

않게 나는데 도무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궁금해서 이런 저런 증상이나 기타 사항 등을 물어 보았지만 무슨 기록이나 전산자료 같은 것도 없고 도무지 답답해서 같이 분만사에 갔습니다.

비록 돈사시설이 오래되어 보였지만 돈사 내 환기나 습도가 좋아 보였고 분만틀 사료통의 청소상태, 바닥의 청소상태도 매우 잘 되어 있는 그런대로 좋은 환경의 농장이었는데 자돈들을 가만 살펴보니 유독 거세한 자돈들의 뒤가 약간씩 부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드물지만 개중에 심한 것들은 거세한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피고름과 함께 진물이 흐르는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정도면 독자여러분도 감이 잡히겠지만 둘다리도 두들긴 후 건넌다는 생각으로 농장주에게 혹시 비슷한 증상으로 죽은 자돈이 있는지 확인한 후 부검을 해보았지요.

아니나 달라? 거세한 곳을 시작으로 화농이

양돈장의 위생을 유지 개선하는데는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소 귀찮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의 실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분만사 사양관리 중에 위생의 측면에서 본다면 주사기의 사용과 외과처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 예를 들면 거세에 사용되는 칼날, 이각기, 단미기나 가위, 견치제거기 등의 사용은 1복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1복의 자돈에게 사용 후에는 세척과 소독, 건조의 과정을 거친 후 재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시작되어서 고관절(사람으로 말하면 사타구니의 대퇴부 관절), 복강까지 염증이 전이되어 있더군요. 이런 걸 농장주에게 보여주니, “어?” 하더군요. 이럴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세를 하고나서 상처가 빨리 나아지게 하고 출혈이 신속하게 멈추게 하기 위해 약장사가 엄청 좋다고 하는 수입산 지혈용 스프레이도 빠짐없이 뿌려왔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 농장주께서 얘기한 외국산 지혈스프레이는 정말 좋은 약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 약에는 균을 살균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소독성분이나 항균성분이 전혀 없는 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 약을 거세로 생긴 상처에 뿌리기 전에 우선 적절한 소독을 실시해서 창상에 세균의 오염을 방지한 후 사용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농장주는 지혈용 스프레이 하나로 거세와 관련된 모든 위생적인 조치가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경우는 농장주의 잘못이라기보다 그 약을 제공한 사람의 잘못이 더 큰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오남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았다면 이와 같은 피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터이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이 농장에서 거세와 관련하여 또 하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었는데 거세에 사용되는 메스날이 지독하게 오염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칼날을 언제 갈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사용한 것 같았는데 적어도 10복 이상의 포유자돈에게 사용했겠지요?

분만사 사양관리 중에 위생의 측면에서 본다면 주사기의 사용과 외과처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 예를 들면 거세에 사용되는 칼날, 이각기, 단미기나 가위, 견치제거기 등의 사용은 1복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1복의 자돈에게 사용 후에는 세척과 소독, 건조의 과정을 거친 후 재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그 바쁜데 매 복마다 언제 세척하고 소독하고 말리고 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오히려 규모가 작은 농장이라면 매일 예상되는 분만이라든가 거세할 복수가 적으므로 그날의 복수만큼만 필요한 도구의 개수를 준



▲ 분명한 건 농장 내의 여러 가지 질병의 전파(예를 들어 이유자돈의 관절염, 뇌막염 등)는 귀찮게 보이는 방법으로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해서 모든 외과용 도구를 1복당 1개씩만 사용한 후 적절한 수세, 소독과정을 거친 후 건조시켰다가 다음에 재 사용하는 순서를 밟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소독만 잘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소독 방법 중에 소독 대상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 없애든가, 고압의 증기 압력솥에 넣고 일정시간 푹 삶아 처리하는 방법 빼놓고 가장 좋은 소독법은 바로 깨끗한 물로 잘 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치를 제거에 사용한 리빠(리퍼)를 소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흐르는 수돗물 같은 곳에서 칫솔과 같은 것으로 구석구석 잘 닦아서 유기물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이때 비누나 기타 소독약을 이용하면 금상첨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만사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비아냥조로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만, 물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당장 농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농장 내의 여러 가지 질병의 전파(예를 들어 이유자돈의 관절염, 뇌막염 등)는 위

와 같은 귀찮게 보이는 방법으로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돈장의 위생을 유지 개선하는데는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소 귀찮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의 실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양돈**

돼지고기 상식



당뇨병 치료에 이용되는 인슐린은 돼지 내장에서 추출

호랑이, 사자, 늑대 등의 순수 육식동물은 짐승을 잡아 내장만 먹고 몸뚱이는 버린다. 이는 내장에 풍부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다. 의서에 보면 돼지 위(باط통)는 소화불량에 약이 되고, 위궤양이나 상처에는 불에 말려 세분해서 아침마다 한술 갈씩 물로 먹으면 상처가 낫지만, 위(胃)출혈에는 금한다고 했다.

돼지 염통은 심장병·간질을 다스리며 식은 땀이 낫는다고 했고, 돼지 간(간장)은 악성빈혈 등에 신표하다고 했지만, 이는 소양인에 한해서만 효과가 있다. 눈도 밝아지는데 소양인에게는 절대적이다. 사람이나 돼지 등 동물의 콩팥은 혈청작용을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혈액속의 노폐성분을 걸러내며, 동시에 기능까지 촉진시켜 보양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당뇨병 치료에 쓰이고 있는 인슐린은 돼지 내장에서 추출하고 있는데, 일부 한의사나 의사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있으니 이는 잘못된 처방이며, 돼지고기를 금하고 당뇨병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일본 오키나와 지방의 장수촌은 돼지고기가 주식이다. 본인은 70 평생 돼지고기를 먹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증상은 없다. 눈도 40대와 마찬가지로 시력이 매우 좋은 편이다. 때문에 주변사람들에게도 돼지고기 먹기를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